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배 경 석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장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1963년 12월부터 우리의 자연 및 자연자원의 현황과 보존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금년에 뜻깊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자연자원 조사와 보존에 앞장서신 원로 생물학자, 선배님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금년 11월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의 반세기에 걸친 환경보전 업적과 역사를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은 후세들에게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각인하고 새로운 자연환경보전 역사를 창조하여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현재 김주환 부회장을 중심으로 50주년 창립기념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원로 교수님, 회원님, 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11월에 출간되는 50주년 창립기념 발간물에 우리 협회의 행적을 충실하게 정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협회의 지난 행적을 간단하게 회고하겠습니다.

근세의 비약적인 기술혁명과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부터 3여년간 냉전의 두 체제가 부딪치는 과정에서 국토는 극심하게 피해를 겪었으며, 1960년대의 산업화 정책의 전개와 인구 밀집에 따른 도시화 등이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자연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 자연보전 및 보호를 위해 원로 생물학자와 자연보호 선각자들이 중심이 되어 1963년 12월 24일 “한국의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KCCN)”를 조직한 것이 현재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 호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위원회”는 국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로, 1967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로 개칭하여 매년 국내의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많은 지역들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리·지질분야, 인류문화까지 연구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966년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의 자연자원과 자연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국제자연보전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IUCN)”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자연의 회복력을 주제로 2012년 9월 6일부터 10일간 개최된 세계자연보존 총회(2012 World Conservation Congress)의 파빌리온 운영을 통하여 협회의 역할과

업적을 홍보하였으며, 철새 동시 센서스를 위한 국제협력을 발의하였습니다. 1974년 2월에는 한국자연보존협회로 개칭하고 시·도지부를 설치하여 회장 대표제와 고문을 두는 체제와 조직 구성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동년 5월에는 영부인이신 육영수여사를 협회총재로 모셨으며, 서울·경기지부를 포함한 8개의 도별지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2대 총재 체제까지 유지되다가 곧 폐지되었으며, 2006년 1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개칭되어 현재 9개 지부를 산하에 두고 1,5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와 동호인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문화공보부 산하 단체였으나 1974년 내무부 산림청, 1977년 내무부 산하로 바뀌면서 시도 조직을 갖추었으며, 1998년 2월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따라 환경부 산하단체가 되고 한국자연보존협회로, 2006년 1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로 개칭하였습니다. 이후 자연 및 자원조사, 자연보호운동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평가, 생태계보호, 기후변화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등 광범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1968년 계간지인 자연보존지를 발간하여 현재까지 161호가 발행된 바 있으며, 1970에 발행된 한국의 자연외에 15종 정도의 조사보고서, 도감류 및 교양지 등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들 중 정기간행물은 창립 40주년인 2003년부터 체제와 규격을 교육부의 논문 체계에 맞추어 논문집 명칭도 현재의 한국자연보존연구지로 변경하여 계간지로 현재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연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느낀 생물의 생리, 생태, 생존전략을 흥미롭게 전개시킨 재미있는 야생 동·식물 이야기를 2007년부터 연 1회 발간하여 회원과 시민들이 자연과 생물을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위기 야생동식물조사,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조사, 생태계보전사업과 자연보전에 대한 관련법의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자원의 효율적이용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 이후의 대량생산, 무분별한 개발 및 도시집중화 등으로 소중한 자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현안인 녹색성장, 전 지구적인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생물다양성 증가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 회복, 예측이 어려워지는 가뭄과 홍수의 극복 등 자연보전과 이용에 대한 우리 협회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잘 지키고 생태 가치를 창조하는 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원로 교수님, 선배님, 협회 1,500여명의 회원님들과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우리협회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